

# CTP 장비도

## S 에스앤아이시스템즈에서 공급

### 일반 PS판 사용하는 CTP 보급 나서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에서 보급하고 있는 일반 PS판을 사용하는 CTP인 UV Setter를 최근 (주)보진재(대표 김정선)에서 채택, 앞으로 국내에서의 보급이 더욱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UV Setter는 독일 BasysPrint사에서 개발한 독특한 방식의 CTP로 세계 10여개 CTP 메이커 중 유일하게 일반 PS판과 현상액 등의 소모품을 사용함으로써 원가절감은 물론 기존 인쇄 환경과 동일해 거부감이 없고 품질의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인쇄업계 특히 프리프레스분야에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DTP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최근에는 CTP의 도입으로 인해 더욱 더 거센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프리프레스 작업공정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데이터화해 시간과 경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인쇄를 실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인쇄인들이 있어 국내 CTP장비 보급은 아직까지 성숙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일반 PS판을 사용하는 UV Setter의 출현은 인쇄인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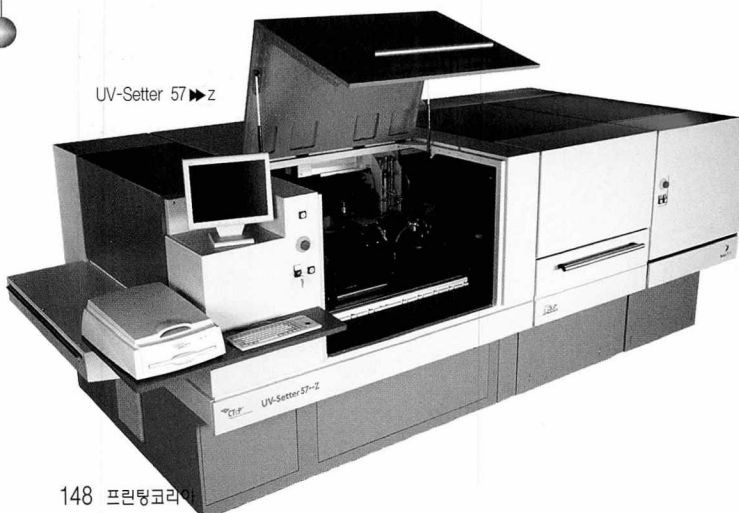
인쇄인들에게 익숙한 일반 PS판으로 인쇄를 한다는 것은 PS판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는 동시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CTP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비 절감으로 인한 채산성 향상은 경영인들에게도 큰 메리트라 할 수 있다. 거기에도 CTP 전용 플레이트보다 인쇄적성이 좋다는 점도 인쇄인들에게는 반가운 일일 것이다.

### 성능 향상시켜 효율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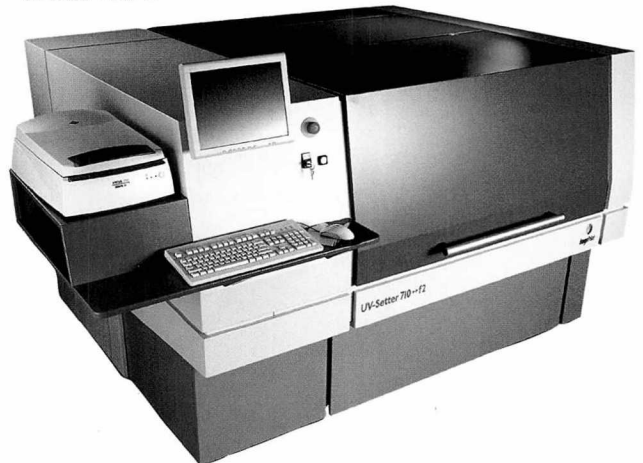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는 5개사에서 UV Setter 710 HS(구형)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 선을 보인 UV Setter 710f2(신형)는 보진재를 비롯한 여러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설치를 기다리고 있다.

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기존 모델 5대를 대구, 광주,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대도시에 공급하고 꾸준한 기술지원과 A/S를 해 왔음은 물론 주변 인쇄사에 UV Setter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신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지난 5월과 6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주)보진재(대표 김정선)와 대전시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영광그래픽스(대표 김원석)가 각각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UV Setter 710f2는 노광속도가 시간당



UV-Setter 710f2



# 일반 PS판 시대

전 세계적으로 CTP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TP 전용 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PS판을 사용해 인쇄판을 출력하는 CTP가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형모델이 선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PS판을 사용하는 CTP인 UV Setter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는 (주)에스앤아이시스템즈를 방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20매(기준 10~12매)로 구형에 비해 2배 가량 향상되었으며, DMD사이즈도 80만 소자에서 130만 소자로 약 65% 향상돼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이밖에도 램프 보장수명도 약 4배(2,500시간) 향상되었으며, 동작 헤드도 개별형에서 동축형으로 바뀌었고, 장비 형태도 기존 수동형에서 신형은 수동을 비롯해 반자동, 전자동도 가능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사양을 맞출 수가 있게 되었다. 게다가 단점으로 지적돼 왔던 장비 진동문제는 연동형에서 고정형으로 전환됨으로써 안정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헤드만 움직여 장비 진동문제가 있었으나 신형은 헤드와 판을 잡아주는 작업대가 같이 움직여 줌으로써 헤드 이동거리와 시간을 짧게 해줘 진동문제 해결과 동시에 작업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노광시 헤드가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동해 필요한 부분만 노광해 속도와 품질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UV Setter 710f2는 구형과 마찬가지로 일반 소부에 필요한 현상기 및 현상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장비나 소모품을 처분하거나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 고객 기술지원이 최우선

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국내 프리프레스업계 및 인쇄업계에 당면한 문제인 재료비 절감과 인쇄품질의 안정성 등을 해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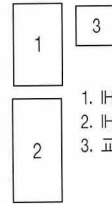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반 PS판을 사용하는 CTP인 UV Setter로서 시장환경과 작업환경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점차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격 경쟁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덜어주고 있다.

에스앤아이는 엔지니어 출신의 김병환 사장을 비롯해 이 분야 베테랑급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이끌어 가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방식도 영업사원들의 방문 영업이 아닌 우수한 장비의 공급과 함께 기술력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고객만족이다.

이와 같은 영업방식은 고객들에 대한 배려로 이 장비를 이용해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함은 물론 실패사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은 조직이지만 최대한 고객과 가깝게 그리고 고객에게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는 영업방식의 채택이 에스앤아이의 최대 강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힘입어 이번에 신형 CTP가 출시되면서 그동안 지켜 보아왔던 여러 회사들이 일거에 계약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본사 측에서도 과도한 주문으로 4개월이나 기다리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에스앤아이는 국내에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과 함께 고객지원을 위한 전략도 수립, 기술지원을 통해 고객만족을 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 IHARA의 컬러 농도계
2. IHARA의 컬러 농도계
3. 고정용 프린터와 접지기 SPINJET 1000 PLUS

### 인쇄관련 장비 및 SW도 공급

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풍부한 기술력과 함께 소모품까지 취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경험과 기술력을 도외시한 영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대응태세를 갖추고 모든 기종의 스페어 파트를 사내에 비축,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장비의 신규모델 출시를 전후해서는 항상 제조사에서의 기술연수와 정기적으로 합동순회서비스로 고객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 개선해 나가고 있다.

에스앤아이는 CTP장비 외에도 인쇄업계에 필요한 립 솔루션, 농도계, 스캐너, 디지털 교정 솔루션, 접지 확인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도 취급하고 있다.

립 솔루션은 미국 Xitron사와 영국의 HighWater사의 립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비의 증설 및 기능, 속도, 확장성, 디지털교정 등의 개선작업을 위한 컨설팅도 하고 있다.

농도계는 일본의 Ihara사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종류는 반사용 농도계(R-720), 투사용 농도계(T-500), PS판용 농도계(R-720P) 등이 있다. 이 농도계는 국내 최대 판매실적을 보여 보급 대수가 327대를 기록하고 있다.

스캐너는 독일의 ReproService사와 SDS사의 드림 컬러 스캐너를 취급하고 있으며, 디지털 교정 솔루션은 독일 GMG사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엡손 플로터를 이용한 양면인쇄 솔루션과 덴마크 TECHSAGE사의 대첩작업 양면 접지 확인용 장비 SpinJet도 취급하고 있다. 이 SpinJet은 양면인쇄 된 인쇄물을 실제와 똑같이 자동으로 접지해주는 장비로 인쇄와 접지 모두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 기술력 갖춘 엔지니어 출신 경영인



중앙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김병환 사장은 영상처리관련 회사인 대한실업(사이텍스 대리점)에 입사하면서 인쇄업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 회사에서 담당하던 분야는 스캐너 관련 업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최첨단이었던 영상기술을 접하는 행운을 안게 된 것이다. 이후 현재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가 된 광진당으로 자리를 옮겨 기술부장과 기획실장을 거쳐 1992년 두리테크니언이라는 회사를 설립, 경영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후배에게 회사를 맡기고 IMF 한파가 몰아친 1997년 11월 에스앤아이시스템즈를 설립,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에스앤아이시스템즈는 어떤 회사인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일반 PS판을 사용해 판을 출력하는 CTP장비 공급업체로서 인쇄관련 각종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다. 자사 영업방침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에 충실하는 한편, 장비를 도입하려는 회사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적합한 기종이 없을 때에는 타사 제품을 권해 주기도 한다. 이것은 고객 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 국내 CTP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분화되었던 프리프레스분야가 DTP 작업환경으로 바뀌면서 공정이 단순화, 일원화돼 품질 안정화와 작업시간 단축 등 품질과 생산성 모두 향상되었으나 가격경쟁이 치열해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재료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CTP 도입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반 PS판을 사용

하는 CTP의 출현은 시장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는 인쇄사들로부터 본격적인 설비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CTP 공급업체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CTP장비 공급업체는 기존의 사진 제판뿐만 아니라 인쇄작업의 환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특히 현재의 작업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인쇄인들에게 장비의 공급, 설치 이전에 구입업체의 작업물 성격 및 종류와 환경 등을 충분히 인지해 최적의 장비와 워크플로우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판매하는 데에만 급급해 한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 국내에 CTP 확산이 일본 등과 비교해 늦어지는 이유는

우선 재료비의 비중이 기존 작업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와 CTP의 장점인 고품질인쇄에 대한 단가 적용이 안 되는 점, 그리고 장비 가격이 필름출력기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또한 기존 영업이익의 포기 불안과 기장이 오퍼레이터화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CTP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방식의 탈피 불안과 프리프레스분야의 이해가 적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 드럼방식보다 평판방식이 노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타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광방식은 내장드럼방식이나 외장드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BasysPrint사만 일반 PS판을 사용하는 평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인쇄적성이 CTP 전용 플레이트보다 안정된 PS판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보다도 가장 안정되고 인쇄적성이 뛰어난 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노광시 헤드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다니면서 이미징함으로써 고품질의 판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과 같이 기술력을 앞세워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고객들이 자사 장비를 이용해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재호 부장〉